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오른쪽부터)가 4일 밤 서울 여의도 MBC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을 하고 있다.

대선후보 TV토론 -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지상중계

네거티브 의식 차·文 ‘조용한 전쟁’

이정희 맹공에 박근혜 한때 당황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는 4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18대 대선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의 주요 정책과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합의 대통령·중산층을 위한 민생 대통령을, 문 후보는 대결과 적대적 정치 정산을, 이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한 질문에는 박 후보는 위기극복과 신뢰를, 문 후보는 소통과 정치를, 이 후보는 공감과 경청을 강조했다.

이정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나. 답답하셨나. 쌓여온 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쌍용차 노동자) 탄압조차 거부한 박근혜 후보 측이 TV토론회 직전 ‘대선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내일이라도 국정조사를 하자. 하루가 급하다. 칠판 위에 노동자에게 겨울이 깊어간다.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급하다.

복지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회사의 책임을 뚜렷이 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용산삼사 등 곳곳에서 서민이 울고 있다. 지난 5년간 참극을 만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하겠다.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정권교체를 하겠다.

문재인=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우리 정치가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 정치인 모두가 국민 앞에 죄인이다.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도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다. 그 간절함이 견딜 수 없이 커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였다.

너무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치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고향마을에서 농부로는 살아가는 전임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았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있다. 상대를 실패시켜 성공하려는 정치, 서로 싸우려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국회의원도 자라도 나서 우리 정치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도 나서 우리 정치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도 나서 우리 정치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도 나서 우리 정치 바꾸자는 것이다.

▲박근혜=이번 대선은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금도 우리 국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들리는 마당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민 마음을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 기독교 싸움과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하고 경제는 나빠질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하고 저는 그 길로 가겠다.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산층 70% 시대를 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공감과 소통, 경청의 리더십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것처럼 전대일 열사 동상에 현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먹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동생인 지만세 비리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에 “동생이 아니라 고하면 아닌 거”라고 입도 못 열게 하는 것은 오만이자 독선이고 구시대적 위정척사적 리더십의 전횡이다. 유신독재 시대의 파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왕이 된다. 여성대통령이 필요하지만 불통·오만·독선의 여왕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문재인=지금 꼭 필요한 것은 소통의 리더십이다. 소통하려면 우선 먼저 많이 들어야 한다. 정치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정지함이다. 저는 북방한계선(NLL)이건 대북정책이건 재벌개혁이건 검찰개혁이건 또 복지를 위한 증세권 심지어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혀왔다. 이 명백 정부의 실패원인은 불통과 정지하지 못함이었다. 소통하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위기극복과 신뢰,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이 위기고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국정 80%가 위기관리 문제라 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다음 대통령에게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 정치에 국민의 불신이 아주 크다. 선거 때마다 말 바꾸기를 한다. 따라서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정희=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공감과 소통, 경청의 리더십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것처럼 전대일 열사 동상에 현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먹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동생인 지만세 비리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에 “동생이 아니라 고하면 아닌 거”라고 입도 못 열게 하는 것은 오만이자 독선이고 구시대적 위정척사적 리더십의 전횡이다. 유신독재 시대의 파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왕이 된다. 여성대통령이 필요하지만 불통·오만·독선의 여왕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문재인=지금 꼭 필요한 것은 소통의 리더십이다. 소통하려면 우선 먼저 많이 들어야 한다. 정치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정지함이다. 저는 북방한계선(NLL)이건 대북정책이건 재벌개혁이건 검찰개혁이건 또 복지를 위한 증세권 심지어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혀왔다. 이 명백 정부의 실패원인은 불통과 정지하지 못함이었다. 소통하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위기극복과 신뢰,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이 위기고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국정 80%가 위기관리 문제라 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다음 대통령에게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 정치에 국민의 불신이 아주 크다. 선거 때마다 말 바꾸기를 한다. 따라서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정희=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안 등판임박... 文과 공동유세 검토

거리유세·TV 라디오 연설·SNS 활용 등 빠르면 오늘부터 본격 지원 활동 나설 듯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 측이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안 후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 후보를 도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안 전 후보 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 전 후보는 조만간 지원 방식을 결정, 빠르면 5~6일 사이에 문 후보에 대한 지원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 전 후보 측 관계자는 “빠르면 오늘(4일) 중으로 지원 방법을 결정해 5일에 문 후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선숙 전 공동선대본부장과 하승창 전 대외협력실장 등 안 전 후보 측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낮 서울 공평동 전 캠프 사무실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원방안을 놓고 회의를 했다.

안 전 후보도 이날 낮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전직 국민소통자문단 위원

들과 비공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55분께 사무실에 둘러 박 전 본부장 등과 대화를 나눴다.

유 대변인은 “지금은 박 전 본부장이 문 후보를 돕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편하게 ‘사랑방’처럼 문 후보를 도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식으로는 문 후보 측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인 자격으로 문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백의중군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라며 “공동선대본부장 꾸리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유세(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TV·라디오 찬조연설 등을 하는 방법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방안 등

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두 분이 함께 상징적인 도시에서 공동유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후보는 이날 국민소통자문단과의 오찬회동에서 “나는 합리적 보수와 온건 진보”라며 “문 후보와 이념적 차이를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아마 TV토론에서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재개 등에 대한 견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또 이날 오찬에서 민주당 문 후보 지원 방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고민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내 신조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는 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실패한 원인이 10여가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오늘 광주·전남 표심 잡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을 방문해 릴레이 유세를 갖고 호남 공략에 나선다.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뒤 광주·전남지역을 첫 방문하는 박 후보는 이날 유세를 통해 동서화합과 지역발전 지원 등을 앞세워 통합의 메시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방문에서는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여수시 서시장, 오후 1시 순천시 옥시장(북부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전남 민생 경제를 살핀다. 이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로 이동해 오후 3시20분 목포역에서 지지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전남지역 유세를 통해 전남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탐광인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특히 전남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 후보는 오후 4시30분에는 광주로 이동해 남광주시장에서 광주지역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뒤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oy Tour Co., Ltd.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Japan, China, and Korea. Includes contact info: 대표전화, (062)234-3222 and website: http://www.joy2000.kr.

Advertisement for kbc 광주방송 일본문화탐방. Promotes a trip to Japan with a focus on food and culture. Includes details about departure dates and prices for various packages.

Advertisement for travel services, including packages for China, Korea, and domestic travel. Features a list of destinations like Beijing, Jeju, and Jeonju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 원 영업보충금 지급 / 여행보험 가입업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충금 지급(해외상품: 1억 원, 국내상품 5천만 원), 관광진흥회 발급 기금, 공항 및 무료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성당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